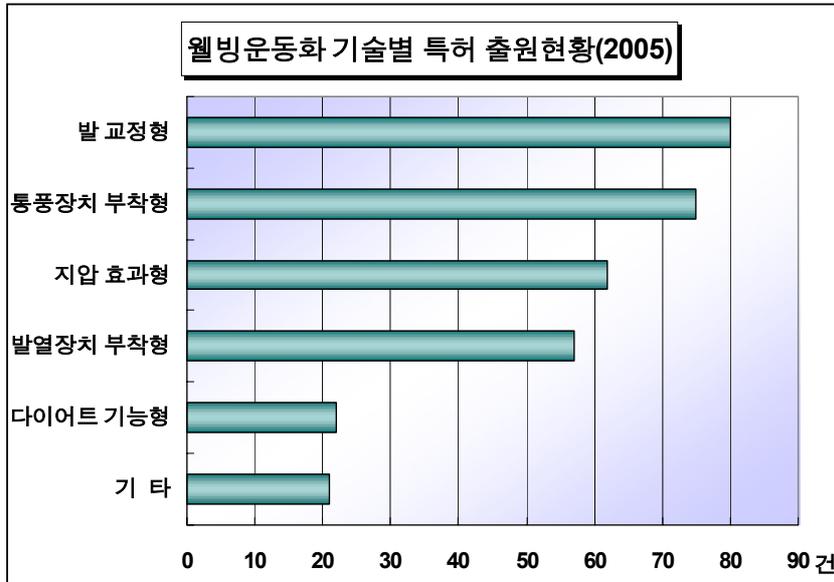


웰빙 운동화 신고 다이어트 한다!

특허청, 2001년 특허 출원 48건서 2005년 78건 ... 흰 다리 교정도

웰빙 열풍을 타고 운동화에도 다양한 기능이 부여되면서 웰빙 운동화 관련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1-05년 5년간 출원된 웰빙 운동화 관련 특허는 317건인데, 2001년에는 관련특허 출원이 48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출원이 1.6배 증가한 78건에 달해 출원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허 출원 주체도 외국인 또는 기업보다는 내국인에 의한 개인 출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웰빙 운동화의 주요 기술로는 평발이나 흰 다리의 교정을 위해 운동화의 바닥창이나 안창 및 깔창의 구조를 인체 공학적

으로 설계해 교정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운동화의 출원이 80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통풍구조 개선을 통해 신발 내부를 쾌적하게 함으로서 무좀을 방지하는 운동화의 출원이 75건으로 24%이며, 안창이나 깔창에 지압 효과를 나타내는 지압구나 봉이 설치돼 인체의 경혈점을 자극해 지압효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운동화의 출원이 62건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겨울철 발을 따뜻하게 보온하기 위해 발열 장치가 부착된 운동화, 무거운 중량의 깔창이 삽입된 운동화를 신고 다님으로써 보행시 운동량을 증가시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운동화의 출원이 각각 57건, 22건 출원됐으며, 이밖에 신발 밑창에 뚫린 구멍으로 찬 공기가 유입돼 밀폐된 운동화 속의 공기를 식혀줌으로써 줄음을 방지하는 운동화, 체중으로 인한 충격을 적당히 분산되게 함으로서 관절염이나 당뇨를 예방하는 운동화 등도 출원됐다.

한편, 출원된 특허 대부분은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며, 개인출원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6/05/30>